

출 장 복 명 서

I. 건명 : 일본 여성농업인 경제활동 현황과 일본 여성농업인 정책 조사

II. 목적 :

- 일본 여성농업인의 경제활동 현황 조사
- 일본의 여성농업인 지원 정책 및 가족경영협정 제도의 실태 조사
- 한-일 여성농업인 연구협의회 개최방안 협의

III. 출장자, 지역, 기간

출 장 자			출장지역	출장기간
소 속	직 급	성 명		
농업구조·경영 연구센터	전문연구원	강혜정	일본 도쿄	2007년 7월 3일~ 7월 7일 (4박 5일)

IV. 방문기관 및 면담자

일 자	시간	방문 및 면담자	비 고
제1일 07/03(화)	09:15~ 11:30 15:30~ 18:00	○ 인천공항 출발 (KE701)→나리타 공항 도착 ○ 일본 농협중앙회 지역생활부 여성조직 대책실 Mr. 오오무라	농협중앙회 일본사무소 이정옥 차장 동행
제2일 07/04(수)	10:00~ 12:00 14:00~ 17:00	○ 농림수산정책연구소 농촌발전정책부 농 촌사회팀 Yoshihiko Aikawa 박사 면담 ○ 농림수산성 보급여성과 과장 Mr. SAKAMOTO 면담	농촌사회에서 일본 여 성농업인의 역할 및 일 본여성농업정책
제3일 07/05(목)	09:00~ 12:00 14:00~ 16:00	○ 동경도 다찌카와시 사카에 농업회의 방 문(전철, 택시 이용) ○ 동경도 다찌카와시 사카에 여성농업인 면담(택시 이용) 및 직판장 견학	여성농업인이 운영하는 농산물직판장 견학
제4일 07/06(금)	15:00~ 20:00	○ 사단법인 전국농업개량보급지원협회 Ms. Sumiko ABE, Senior Researcher와 면담 및 업무협의회 개최	일본여성농업인 연구동 향, 가족경영협약제도 운영실태

V. 주요 출장결과

다음은 일본 출장 기간 동안 방문한 기관에서 제공한 통계자료와 면담자료를 바탕으로 요약·정리한 내용임.

1. 일본 농협중앙회(JA) 지역 생활부 여성조직대책실 Mr. 오오무라 면담

- JA 여성조직대책실은 각 지역농협의 농촌 여성들로 구성된 여성조직(부)에게 모임 장소 제공, 생활 및 문화 교육 지원 등의 사업을 하고 있음.
- 농협의 여성조직 명칭은 여성조직부 또는 녹색부 등 각 농협에서 임의로 이름을 붙이고 있음. 여성조직의 주요 사업은 1) 농산물 가공, 직판장 운영, 2) 간병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3) 농촌의 고령농업인을 위한 사업(예: 미니데이 서비스), 4) 학교급식사업 등을 들 수 있음.
- 농산물 가공, 직판장 운영 등 여성농업인 사업을 지원함.
 - 지역의 농촌 여성들이 그룹을 만들고 지역 농협은 여성 그룹의 사업을 지원
- 여성농업인들만을 위한 교육은 없고 영농지도부에 여성이 참가할 수 있음. 작목별 모임에도 참여할 수 있음.
- 지역농협에서 여성조직을 인정농업자로 추천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적인 선정 및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행함.
- 농협의 복지사업으로 농촌의 고령노인 돌봄 사업이 있음. 이는 남녀불문 고령농업인을 위한 사업으로 여성노인만을 위한 사업은 아님.
 - 농촌에서는 농협이 고령농업인 돌봄 사업을 대행하고 있음. 또한 여성 대상 간병인 양성 교육도 하고 있음.
- 농촌 인구 절반이 여성이며, 식품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여성의 시각에서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자는 사회적 인식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은 증대될 것임.
- 농업위원 혹은 농업협동조합 임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 추세이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1990년 여성농업위원 비율은 0.15%에서 2005년 4.12%로 증가하였고, 여성 농협 조합원수도 동기간에 12.05%에서 16.10%로 증가하였음.
 - 농협 조합원 조건('농업협동조합모범정약'에 규정)은 토지명의를 관계없이 주소나 경영에 관한 토지가 해당 조합의 지역에 있으면 됨. 1년에 90일 이상 종사하는 자 또는 농가의 주소가 해당 조합의 지구에 있으면 되고, 농업법인은 사무소가 지구에 있으면 됨. 1년에 90일 이상 종사기간 증명은 자진신고

표 1. 여성농업인의 사회활동 참여 현황

단위: 명, %

	1990	1995	2000	2004	2005
농업위원수	62,524	60,917	59,254	56,348	45,379
- 여성농업위원	93 (0.15)	203 (0.33)	1,081 (1.82)	2,391 (4.24)	1,869 (4.12)
농협 정조합원수	5,537,547	5,432,260	5,240,785	5,045,472	4,997,797
- 여성조합원수	667,468 (12.05)	707,117 (13.02)	746,719 (14.25)	786,357 (15.59)	804,586 (16.10)
농협 임원수	68,611	50,735	32,003	23,742	22,799
- 여성 농협 임원수	70 (0.10)	102 (0.20)	187 (0.58)	364 (1.53)	438 (1.92)

주: 농업위원수는 10월 1일 자료이고 농협자료는 각 사업 년도말 (농협에 따라 4월말~3월말) 자료임.

자료: 농협조합원수, 임원수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성 「종합농협통계표」, 농업위원수에 대해서는 경영국 구조개선과 조사 자료임.

- 여성농업인의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JA전중¹⁾은 제24회 JA전국대회(2006년 10월 11일)에서 「청년·여성의 정조합원 가입촉진」, 「여성의 JA이사 등 선출 (JA 조직 수 이상의 여성이사 선출이 목표)」 등을 결의한 바 있음. 또한 전국농업회의소는 의욕적인 여성농업인 등의 선거의원 입후보 촉진, 선임의원 으로의 등용 촉진 (한 농업위원회 당 두 명이상의 여성농업위원 등용이 목표) 등을 추진하는 「신·농(農)위(委)조직 활동개혁 프로그램」을 도도부현 농업회의 회장회의(2004년 11월 11일)에서 결정하였음.

○ JA전국여성조직 협의회의 JA 여성 『바뀌자 바꾸자 선언』의 내용

- JA는 2000년 제22회 JA전국대회에서 여성 정조합원 가입과 총대표·이사 취임에 관한 목표수치를 포함한 「여성의 JA운영 참가 촉진」을 결의하였음. 2003년 제23회 JA 전국대회에서는 「JA개혁의 단행」을 결의하여 여성의 참여를 촉구하였음. JA 여성조직 구성원은 먼저 스스로가 두려워하지 않고 변혁하고 자기 주변도 변화시키는 실천 활동을 추진할 것을 선언하였음. 구체적인 실천 활동은 다음과 같음.

1) 생명운동

바뀔시다! 주체적으로 스스로 step up 합시다.	바꿔시다! 주체적인 활동으로 주위 변화를 일으킵시다.
---------------------------------	----------------------------------

1)JA는 Japan Agricultural Co-operatives 의 줄임말로 농업협동조합 중앙회(全国農業協同組合中央会 <http://www.zenchu-ja.or.jp/>)의 약칭임.

바깥시다! 주체적으로 스스로 step up 합시다. 식(食)과 농(農) 아이들에게 식(食)과 농(農)을 전하는 노력·활동 • 일주일에 한번을 주먹밥 간식의 날 • 의식적으로 농작업을 도울 기회를 만들다 • 장보러 갔을 때 계절의 농산물, 수입품을 찾아내는 게임을 한다.	바깥시다! 주체적인 활동으로 주위 변화를 일으킵시다. 식(食)과 농(農) 정보공개, 안전·안심의 발신 직매소 및 직판 등 소비자에 직접 발신하는 기회가 있을 때 • 가공품의 재료·만드는 방법에 대해 가급적 많은 정보를 공개한다. • 직매소 이용자에 대해 출하자의 발이나 가공장을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설정한다. 시장에 출하할 경우 • 생산부회 및 청년부과도 연계하고 생산이력기록운동 확립을 추진 • 마트 등에 나가서 생산정보를 제공하면서 판매촉진을 실시 • 시장관계자와의 의견교환회 설정
환경 eco-life의 실천 • 아동복 후물림 모임 • 집에 있는 불필요한 물건을 파는 벼룩시장을 열어 용돈을 번다. • 농약감소·토양 개선 추진	환경 농업의 다원적 기능 홍보 • JA시설이 및 점포에 다원적 기능을 알리는 간판, 포스터 등 전시 • 지역의 생물 지도 작성 • 자매도시 주민과의 교류를 통한 시골의 장점 찾기 • 지역의 미경(美景)10선 설정 • 농업이 사라진 지역의 예상도 작성
평화 평화를 위한 실천 • 각종 집회 등에 참가 • 대화 • 모금 실시	평화 체험·학습 활동 • JA여성조직 elder(老)부회, 연금 조직, 양로원 이용자 등 전쟁경험이 있는 분들의 체험담을 듣는 모임 운영(設營) • 지역의 전쟁관련 서적·시설 방문 • 8월에는 JA홍보지에 평화특집을 게재

2) 자립운동

바깥시다! 주체적으로 스스로 step up 합시다. 인생 계획 나와 가족의 꿈 만들기 • 자기의 10년 인생 계획표를 작성 • 가족 각자가 10년 인생 계획표를 작성 • 우리 집의 인생 계획 수립	바깥시다! 주체적인 활동으로 주위에 변화를 일으킵시다. 인생 계획 인생 계획과 농협 사업과의 연계 • JA여성조직의 인생계획 학습회에서 FP에게 강사를 맡긴다. • 연대별 활동에서 그 연대에 알맞은 금융상품이나 공제상품을 안내 • 인생계획의 경제면에서 상담 담당자 설치 • 건강증진을 주제로 한 공동구매 제안 • 평생학습 및 오락 제안
---	---

공동참가 부부 사이의 파트너십 확립 - 가사와 일의 분담은 대화를 통해서 결정. - 지역 및 학교 행사는 서로 융통해서 참가. - 부부가 쌓은 재산은 둘의 명의로 한다.	공동참가 JA에서 남녀공동참가방침 책정 아직 책정되지 않은 경우 - 방침 작성을 위한 검토위원회 설치 - 검토위원회에서 방침을 검토하고 책정(JA의 기본방침, 조합원 단계·직원 단계의 남녀공동참가에 대한 생각, 조합원의 참가에 대한 목표 수치 설정, 구체적인 진행 방법, 실시 일정 등) 이미 책정했을 경우 - 목표 도달 현황 점검 - 저해요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검토 - 조합원 단계에서만 방침을 정한 경우에는 직원 단계에 대해서도 방침 책정
---	--

3) 공생운동

바꿉시다! 주체적으로 스스로 step up 합시다.	바꿉시다! 주체적인 활동으로 주위에 변화를 일으킵시다.
인권 존중 폭 넓은 학습 - 인권에 대한 역사를 학습·인권 운동 등에 대해 책, 영화, TV드라마 등에서 배운다. - 다양한 사람들에게 선입견 없이 행동한다.	인권 존중 관계단체와의 교류·연계 - 관계자한테 이야기를 듣는 기회를 설정한다. - JA·여성조직의 행사·발표회 등에 관계단체를 초대한다. - 관계단체가 참가 가능한 형태의 행사를 기획
서로 도와주기 자기 주변부터 활동 실천 - 일상적이고 티를 내지 않은 자원봉사 실천 - 자원봉사단체에 가입하고 정규적 활동 참가 - 주변 사람들에게 자원봉사활동을 권한다.	서로 도와주기 주민 참가형 상호원조 조직 구축 - JA·여성조직의 상호원조 조직에 대한 참가자를 지역 주민에서 모집 - JA퇴직 직원의 상호원조 조직 참가 촉진 - 지역의 다른 상호원조 조직과의 연계
학습·교류·연계 농업인, 주민으로서의 정보 발신 - 직매소 등에서 소비자에게 조리방법을 포함해서 농산물을 홍보 - 전통적 가공품 등 그 기술을 계승하고 소비자에게도 알린다. - 지역 노인들로부터 민화, 전설을 면담조사	학습·교류·연계 학습·교류를 실시한 결과의 공개·발신 - JA홍보지, JA여성조직기관지, HP등 활용 - 조례, 내무 관계 회의 등에서 참가한 직원으로 보고 받는다. - 교류 상대방과 관계 유지

4) 조직운동

바꿉시다! 주체적으로 스스로 step up 합시다.	바꿉시다! 주체적인 활동으로 주위에 변화를 일으킵시다.
목표별 활동의 충실 동료로서 같이 일하는 사람을 권유	목표별 활동의 충실 Fresh Ms. 육성 강화

바뀔시다! 주체적으로 스스로 step up 합시다. • 주의 사람들도 활동내용을 알리고 활동에 권유한다. • 활동에서 멀어져가고 있는 사람한테도 말을 건다. •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밝고 개방적인 분위기 조성	바뀔시다! 주체적인 활동으로 주의에 변화를 일으킵시다. • 여성대학 등 장기강좌제에 의한 학습기회 설정 • Fresh Ms. 가 JA에 관심을 갖게 될 만한 기획(企劃) 설정 • JA활동위원회 위원에 취임 • 활동 시 보육체제 정비
원활한 활동계승 원활한 활동계승·역할분담의 분산화 • 모든 일을 부장 책임으로 돌리지 않는다. • 아무것도 하지 않은 「손님」이 생기지 않게 각자의 역할을 정한다 • 역할을 고정시키지 않고 교체로 누구나 할 수 있게 한다.	원활한 활동계승 JA에서의 JA여성조직의 위치 명확화 • JA임직원과의 대화 활동에서의 협의 • JA임직원과 여성조직에 의한 검토위원회에서의 협의 • JA여성조직 내부에서의 의견 집약 • 이사회 및 총대표회에서의 질문

○ 제24회 JA전국대회에서 「식(食)과 농(農)을 맺는 JA육성-농(農)과 공생의 세기를 실현하기 위해-」를 결의하고 JA 스스로 「비전」을 책정하였음. JA여성조직도 조합원, 농업인으로서 또한 그 지역 시민으로서 3년 계획 「JA여성 바뀔시다! 바뀔시다! 선언」운동을 인수하고 더 나은 개혁을 향해 계획을 추진하기로 함.

- 「JA여성조직」의 자세와 「여성조직 활동 비전」을 설정하여 의식개혁을 추진하고 지역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중요함.

생명: 우리가 지탱하겠습니다. 농(農)과 생활.

학동농원, 식농(食農)교육, 학교급식, 직매소, 농산가공, 지산지소 운동

공생: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식(食)과 지역.

상호 원조, 육아 지원, 소비자와의 지역내 교류, 건강하고 풍토에 맞는 식생활의 학습·실천 운동, 환경·평화

자립·조직: 우리가 되겠습니다. 가족의 주역으로, JA의 주인공으로.

가정내 남녀공동참가, 동료 확보, 인생계획, JA경영에 참가, Fresh Ms.의 육성, 조직의 활성화

2. 농림수산정책연구소 농촌발전정책부 농촌사회팀 Yoshihiko Aikawa 박사 면담

○ 가족경영협정은 농업경영 및 생활의 목표, 역할분담 등에 대해 가족끼리 대화를 통해 문서로 정리하는 것임. 「우리 집에는 필요 없다.」 「말로 하지 않아

도 서로 이해하고 있다」 「협정을 하면 남남 같다」 등으로 회피하는 농가들이 있으나, 가족이야말로 기분 좋게 일하고 생활하기 위해 환경조성, 경영 방침 결정이 필요함. 협정으로 효율적인 경영이 이루어지고 직업으로서의 농업경영을 확립하고 발전시킬 수 있음.

○ 가족경영협정의 효과는 다음과 같음.

1) 가족구성원의 경영참가

: 장래의 목표 및 역할 분담 등에 대해 가족의 합의 형성이 이루어지고 각자가 주체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음.

2) 농업후계자 확보 및 육성

: 취업조건이 명기되어 있으므로 후계자는 취농하기가 쉬어지고 의욕도 향상.

3) 여성 및 고령농업인의 역할 및 평가

: 여성 및 고령자의 역할이 적절하게 평가 받음으로써 여성의 지역사회 및 경영에 대한 참가, 고령자는 일하는 보람을 얻음.

○ 가족경영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일을 하기 위한 조건: 급여, 노동시간, 휴일, 작업환경, 연수 참가

2) 경영방침과 계획: 경영방침의 협의 및 결정, 역할 분담

3) 원활한 세대 교대: 후계자 육성, 경영 이양, 상속 및 증여의 대응, 노후 생활

4) 생활 방식: 가사 역할 분담, 가게 관리, 육아·간호, 사회활동 참가

○ 가족경영협정을 맺는 순서는

1) 가족 모두 농업경영 및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상황을 인식

2) 대응책을 검토하고 공통의 목적을 설정

3) 협정서를 작성, 입회인 앞에서 조인(調印)

○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Q. 왜 문서화하나?

A. 구두 약속으로는 이야기한 내용이 애매해지기 쉽기 때문에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함. 눈에 보이는 형식으로 함으로써 가족 모두가 언제나 확인 할 수 있고 이것을 지키고자하는 자각이 생기므로 가족 서로의 이해가 깊어짐.

Q. 한번 맺어진 협정은 그대로 내버려 두나?

A. 경영이나 생활 상황은 날마다 변하므로 정기적으로 협정내용을 재검토함. 예를 들어 후계자가 취농 및 결혼을 할 때, 경영내용의 변경이나 규모 확대를 할 때가 재검토 시기라고 생각됨.

Q. 인정농업인은 가족경영협정을 도입하는 것이 좋은가?

A. 스스로의 경영개선을 위해 적극적이고 의욕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인정농업인 여러분은 경영개선계획에서 규모확대, 생산방식의 개선 등을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함.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가족이 하나가 되어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가족경영협정이 유효함. 가족경영협정 체결을 강력 추천하고 있음.

Q. 왜 생활방식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나?

A. 가족경영은 생산과 생활이 하나로 되어 있음. 따라서 농업부문과 생활부문을 합쳐서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임. 그래서 가족경영협정에는 생활방식에 대한 합의를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함. 농업경영 및 기술은 경영주, 생활은 배우자라는 분담도 있으나 한 쪽이 뜻하지 않게 사고를 당할 경우를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Q. 입회인은 필요하나?

A. 체결한 가족구성원의 「협정내용을 제대로 실현하겠다.」는 선언을 입회인이 확인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인지된 확실한 내용이 되고 더욱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가족경영협정의 제도적 지원

: 가족경영협정을 체결해서 경영에 참가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에 대해서는 농업자연금, 농업개량자금 등의 제도 혜택이 있음.

- 인정농업인 제도(2003년 6월~): 실질적으로 공동경영을 행하고 있는 경우, 가족경영협정 체결 등을 여건으로 부부 등에 의한 인정농업인 인정공동신청을 할 수 있음(여성농업인 및 농업 후계자도 파트너와 함께 인정농업인이 될 수 있음).

- 농업인연금(2002년 1월~): 의욕 있는 후계자에 대한 새로운 조치로서 인정농업인, 자영업자(농어업 경영자를 포함함)등의 의욕 있는 후계자와 가족경영협정을 체결하고 경영에 참가하고 있는 배우자, 후계자가 일정한 여건을 만족시키면 기본보험료(20,000엔)에 대해 일정비율의 국고조성(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농업개량자금(2002년 7월~): 농업개량자금 등에 관해서는 여성농업인 및 농업 후계자가 당해 자금의 대출을 받고자할 경우 가족경영협정 체결이 대출조건인 하나임.
- 과수수급조정대책(2001년도~): 대상 생산자를 인정농업인 등으로 하고 있어 그 중에 「인정농업인과 동등한 과수농업의 후계자로 간주되는 자이며 가족경영협정을 체결하고 경영에 참가하고 있는 배우자」도 포함됨.
- 농지의 알선(2003년도~): 농지 소유자 등에서 농지 임대, 매매에 관한 알선을 받고 싶은 자(알선 대상자)을 「앞으로의 지역농업을 맡을 농업경영의 경영주」라고 하고 있으며 부부공동경영의 경우 ①부부 간에서 경영 내에서 역할 분담이 가족경영협정의 체결 등으로 명확화 되어 있고 ②부부 모두가 경영방침의 결정에 참가하고 있으며 ③농산물의 출하자명 등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등 둘이 모두가 공동경영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부부 모두를 「경영주」로서 알선의 대상으로 하는 것에 지장이 없음.
- 농림수산 축제 참가의 표창행사에서의 부부 연명 표창(2001년도~): 경영에 배우자의 공헌도가 높은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부부 연명으로 표창을 받을 수 있음. 그 때 ①가족경영협정서, ②작업일지 등 작성한 당해 표창에 관한 부문에서의 배우자의 부문분담, 종사일수가 대강 50%에 달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영주의 서류, ③ 보급조직 등에 의한 의견서가 필요함.

3. 농림수산성 보급여성과 과장 Ms. SAKAMOTO 면담

- 일본 여성농업인의 인적 특징
 - 일본의 농업 취업인구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2005년 전체 농업 취업인구의 53.3%로 여전히 여성농업인은 농업 및 농촌 지역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표 2. 농업취업인구에 차지하는 여성농업인 비율의 추이

단위: 천 명, %

	1990	1995	2000	2004	2005
농업취업인구	5,653	4,140	3,891	3,622	3,353
여성취업인구 (비율)	3,403 (60.2)	2,372 (57.3)	2,171 (55.8)	2,000 (55.2)	1,788 (53.3)

자료: 농림수산성 「농림업센서스」, 「농업구조 동태조사」

- 농업 취업인구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30~60대 농업 취업인구의 약 60%를

여성농업인이 차지하고 있음. 연령별 농업 주종사자 비율을 보면, 50대에서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고 40대와 60대에서도 여성이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음.

표 3. 성별 연령별 농업취업인구 분포

단위: 명, %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합계
남성	62,495 (62.8)	59,554 (62.8)	50,499 (41.0)	97,549 (40.6)	194,583 (40.6)	383,730 (43.5)	715,988 (50.0)	1,564,398 (46.7)
여성	37,060 (37.2)	35,243 (37.2)	72,688 (59.0)	142,504 (59.4)	284,487 (59.4)	499,211 (56.5)	716,999 (50.0)	1,788,192 (53.3)

자료: 농림수산성 「2005년도 농림업센서스」

표 4. 성별 연령별 농업 주종사자수 분포

단위: 명, %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합계
남성	1,079 (82.6)	28,566 (79.4)	45,692 (62.4)	92,068 (50.7)	185,006 (48.4)	338,873 (50.4)	522,880 (58.4)	1,214,164 (54.2)
여성	227 (17.4)	7,415 (20.6)	27,484 (37.6)	89,348 (49.3)	197,183 (51.6)	333,049 (49.6)	371,802 (41.6)	1,026,508 (4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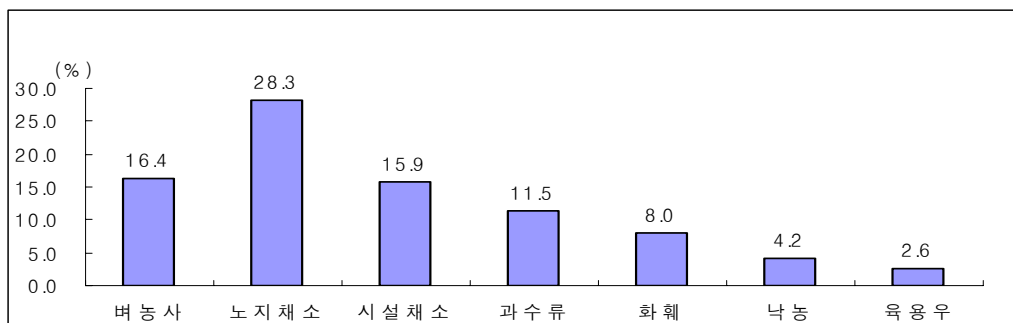
주: 농업 주종사자는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원(농업취업인구)중에서 조사 날짜로부터 과거 1년간 주된 직업 상태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던 자」를 말한다.

자료: 농림수산성 「2005년도 농림업센서스」

○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 참여 현황

- 1년 동안 농업에 60일 이상 종사한 여성이 있는 농가 중에서 여성농업인이 책임을 맡아 담당하고 있는 영농 분야가 있는 농가는 약 70.6%를 차지하고 있음. 주요 담당 작목을 보면 노지채소가 28.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벼농사 16.4%, 시설채소 15.9%, 과수류 11.5% 등의 순임.

그림 1. 여성농업인이 주로 담당하고 있는 영농 분포 (복수 응답)



자료: 「농업구조 동태조사: 여성의 취업구조 및 경영참가현황조사」 (2003년 7월)

-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 참여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여성의 40%, 남성의 60%가 경영자 혹은 공동경영자로서 농업경영 전체 혹은 특정 부문의 경영을 도맡아 관리하고 싶다 (또는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젊은 세대일수록 이런 경향은 강하게 나타났음.

표 5.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 참여에 대한 의향

단위: %

농업경영 참여 의향	남성	여성
1.경영자로서 농업경영 전체를 도맡아 관리하고 싶다	7.2	5.3
2.공동경영자로서 농업경영전체를 도맡아 관리하고 싶다	28	14.8
3.공동경영자로서 특정부문의 경영을 도맡아 관리하고 싶다	25.4	17.1
4.경영방침은 남편 혹은 부모 등이 결정하지만 나의 의견도 반영했으면 한다	35.4	49.9
5.지시 받은 농작업에만 종사하는 것이 좋다	3.9	11.7
6 응답 없음	0.9	1.2

자료: 식료·농림수산업, 「농가의 남녀공동참가에 관한 의향조사」(2004년 12월)

- 농업 생산을 유지 발전시키고 효율적이면서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목표로 의욕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인정농업인 대상이 될 수 있음. 따라서 여성농업인도 당연히 인정농업인이 될 수 있음.
- 농업경영개선계획을 신청 할 수 있는 자는 2003년 6월 이전까지는 가족경영의 경우 경영을 주재하는 개인에게 한정되어 있었고, 부부, 부모와 자녀 등 복수의 사람이 공동으로 인정신청을 할 수 없었음. 그러나 가족경영에서 실질적으로 공동경영인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이나 농업후계자에 대해서도 공동경영인으로서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2003년 6월 인정농업인제도의 운용개선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공동경영자인 부부가 공동명의로 인정농업인이 될 수 있게 되었음. 그 결과, 인정농업자 중 여성의 비율은 1998년 1.49%, 2004년 2.02%, 2006년 2.44%로 점차 증가하고 있음.
- 부부 인정농업인 공동 신청에 필요한 요건은 1) 농업경영개선계획 인정신청을 하는 명의인이 모두 농지법상의 세대원일 것, 2) 가족경영협약 등이 체결되어져 있으며 그 중에서 해당 농업경영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이 해당 명의인 모두에게 귀속할 것, 3) 또한 농업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해당 명의인 모두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명확할 것, 4) 해당 가족경영협약 등의 상호결정이 준수되고 있을 것 등임.

표 6. 여성 인정농업자 추이

단위: 명,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실수	1,780	2,140	2,539	2,746	3,149	3,402	3,685	4,125	4,896
비율	1.49	1.57	1.75	1.83	1.93	1.98	2.02	2.15	2.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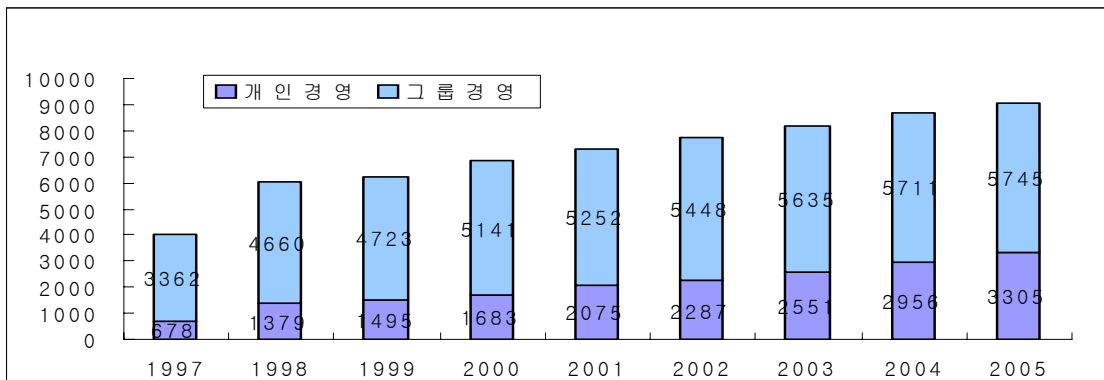
주: 2004년 이후의 인정농업자는 부부에 의한 공동신청을 포함함.

자료: 농림수산성 경영정책과 조사 「농업경영개선계획의 영농 유형별 인정현황」

○ 여성농업인의 창업활동 동향

-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특산 가공품 생산 및 직판장에서의 판매, 농촌관광 등의 분야에서 여성농업인의 창업활동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05년도는 전년 대비 4.4% 증가한 9,050 건수가 보고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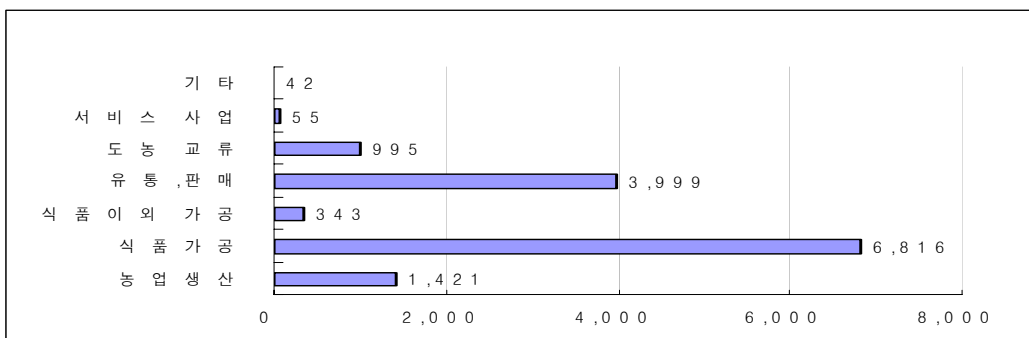
그림 2. 여성농업인의 창업활동 추이



자료: 농림수산성 보급·여성과 조사 「농촌여성에 의한 창업활동 실태조사」

- 창업 활동내역을 보면 농산물 식품가공이 75% (6,816건), 직판장 판매·유통이 44% (3,999건)를 차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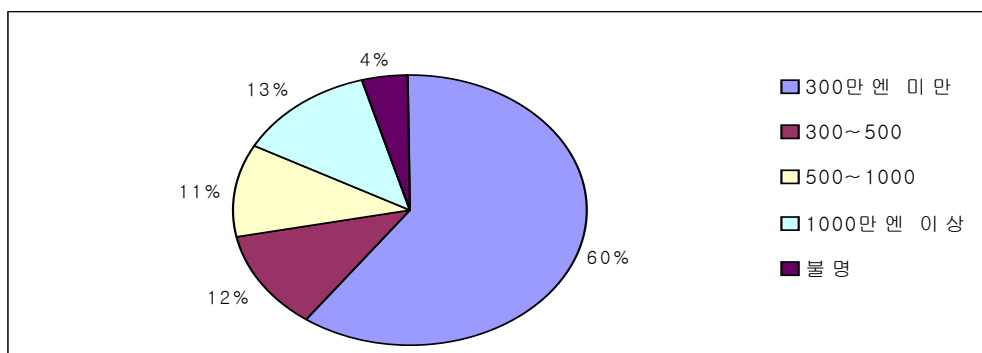
그림 3. 여성농업인의 창업 활동 내역 (복수 응답)



자료: 농림수산성 보급·여성과 조사 「농촌여성에 의한 창업활동 실태조사」

- 매출액이 300만엔 미만인 경영체가 전체의 59%를 차지하고 있어 여성이 운영하는 경영체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음. 2004년도 농촌여성 창업 8,667건의 매출액은 624억 5천만엔에 이르며 총매출액을 창업건수로 나눈 창업 건당 평균 매출액은 735만엔임. 매출액 5천만엔 이상의 경영체는 186건으로 전체 창업건수의 2%정도이지만 전체 매출액의 3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4. 여성창업의 매출액 분포



자료: 농림수산성 보급·여성과 조사 「농촌여성에 의한 창업활동 실태조사」

표 7. 여성 창업의 매출액과 창업건수

	5000만엔 이하	5000만엔 이상	합계
매출액 합계	399억6,900만엔	224억8,100만엔	624.5억엔
비율	64%	36%	100%
창업건수	8106건	186건	8292건
비율	98%	2%	100%

자료: 독립행정법인 농업공학연구소 「2005년도 농촌생활 종합조사 연구사업보고서」

표 8. 매출액 5,000만엔 이상의 창업 경영체의 매출액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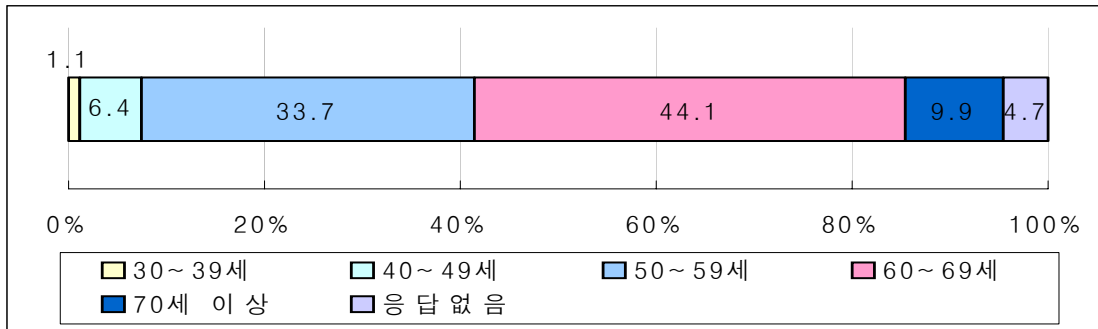
단위: 천만엔, 건

매출액	5~7	7~9	9~1.1	1.1~1.6	1.6~2.1	2.1~2.6	2.6~3.1
건수	57	41	20	23	16	7	4
매출액	3.1~3.6	3.6~4.1	4.1~4.6	4.6~5.1	5.1~5.6	5.6~6.1	응답없음
건수	0	1	0	2	2	2	11

자료: 독립행정법인 농업공학연구소 「2005년도 농촌생활 종합조사 연구사업보고서」

- 창업을 한 여성농업인의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60대가 44.1%, 50대가 33.7%로 전체의 약 80%를 50대 이상이 차지하고 있는 반면, 20대에서는 0.1%, 30대에서는 1.1%로 젊은 세대의 창업활동이 매우 부진한 상태임.

그림 5. 창업한 여성농업인의 연령 분포



자료: 농림수산성 보급·여성과 조사 「농촌여성에 의한 창업활동 실태조사」

○ 여성농업인 창업 지원제도

- 창업하는 여성농업인을 위해서 2002년부터 농업개발자금에 여성창업을 우선 지원제도가 새롭게 마련되었음. 이 제도를 이용하면 여성농업인이 자신의 명의로 무이자 대부를 받을 수 있음. 또한 농협 등 민간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를 받을 경우, 담보나 보증인이 없어도 농업신용기금협회의 채무 보증을 받을 수도 있음.

표 9. 대부를 받을 수 있는 여성농업인 대상자 및 필요 요건

대상자	필요한 요건
① 인정농업인	
② 인정취농인	-경영개시 후 5년 이내, 또는 취농계획 인정 후 10년 이내
③ 주업농업경영자 및 이것에 준하는 자	-농업소득이 총소득의 과반(법인의 경우는 농업관련 매상고가 총매상고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을 것 또는 농업조수익 200만엔 이상(법인의 경우는 1,000만엔 이상)일것 -청장년(18세이상 60세미만) 가족농업종사자가 있을 것(법인의 경우는 청장년자 상시고용자가 있을 것) -부기기장을 하고 있을 것(실시할 전망이 확실한 경우 포함)
④ ①부터 ③(가족경영에 한함)의 경영주 이외의 농업인으로 가족경영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	-경영의 일부 부문에 대해서 주재권이 이고, 또한 그 부문의 경영에 대한 위험부담 및 수익처분권이 명확히 되어 있을 것(구분경영, 부기기장, 농업용 계좌 개설 등)
⑤ ①부터 ④까지의 사람이 전체 구성원의 과반을 차지하는 법인격을 갖고 있지 않는 임의단체	-대표권의 범위 등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른 규약을 가지고 있을 것
⑥ 도입계획에 근거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생산방식을 도입하는 에코파머(e co-farmer)	

자료: 농산어촌여성·생활활동지원협회 「여성농업자 지원제도」

- 대부를 받을 수 있는 여성농업인의 기준은 1) 인정농업인, 기타 농업후계자이고 자신이 재배한 농축산물을 이용하여 자신이 직접 경영을 시작하려는 여성, 2) 농업경영주가 아닌 여성농업인의 경우는 가족경영협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 등임. 구체적인 요건은 표와 같음.

○ 농산물 직거래와 농산가공품 판매 절차

- 쌀을 소비자에게 일정수량(연간 20톤) 이상 직거래 판매하기 위해서는 지방 농정사무소장에게 신고해야 함.
- 다음 13가지 식품은 제조 또는 가공방법 기준이 정해져 있음. 그 식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려고 할 경우, 후생노동성 장관의 승인이 필요함: 우유, 산양우, 탈지유 및 가공유, 크림, 아이스크림, 무당연유, 무당탈지연유, 발효유, 유산균 음료 및 유음료, 청량음료수, 식육제품, 어육반죽제품, 용기포장 가압가열 살균식품
- 이러한 13가지 식품은 위생관리 방법에 대해 식품위생상 위해발생 방지조치를 종합적으로 강구한 과정을 거쳐 제조하거나, 혹은 가공한다는 취지를 담아 신청하고 후생노동성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이 경우 신청서에 해당식품의 시험성적에 관한 자료 등을 첨부함. 단, 신청은 유료이며 승인은 137,800엔, 변경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는 30,700엔임.
- 도도부현 지사의 영업허가가 필요한 창업이 있음. 생선, 채소, 채소절임, 건어물, 곤약, 잼 등은 판매할 수 있지만, 된장이나 해산물 졸임(어패, 조개, 해초 등을 간장이나 설탕에 절여 장기 보관한 식품) 등은 원칙적으로 영업허가가 필요함. 영업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34종임. 그 업종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도도부현 지사가 정한 시설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보건소에 신고하고 도도부현 지사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함. 필요한 절차는 지방 농정사무소, 보건소, 농업개량 보급센터 등에 문의할 수 있음.

4. 사단법인 전국농업개량보급지원협회 Ms. Sumiko ABE, Senior Researcher와 면담 및 업무협의회 개최

- 가족구성원 성별을 불문하고 의욕을 가지며 일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각 가족원의 역할과 책임, 보수와 노동시간 등을 명확히 하고 각각의 의욕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함.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농업경영에 책임을 맡고 있는 가족원들이 상호간의 약속을 문서로 만들어 체결한 것이 '가족경영협약'임.

- 독일의 '농지양도계약법'을 모델로 일본의 가족경영협약 제도를 만들었음. 처음에는 부모와 자식(영농승계자)간의 협정으로 시작하여 농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부부중심의 농가형태로 바뀌면서 부부간의 협정으로 확대되었음.
- 가족경영협약은 1) 정신적, 신체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2) 노동의욕이나 경영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3) 원활한 경영계승을 위해서 농업경영의 취업조건과 환경개선, 농업경영의 계승과 상속, 일상생활의 역할과 책임분담 등을 결정함. 즉, 농업경영과 일상생활의 규칙을 정하는 것이 가족경영협약임.
- 가족경영협약제도는 영농 후계자의 경제적, 정신적 자립에도 영향을 미치고, 안정된 농업경영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음.
- 여성농업인의 농업노동은 물론 농업경영 관리활동이나 가사, 육아, 노인수발 등의 노동을 적정하게 평가하여 여성농업인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경영 의사결정 참여, 지역사회 의사결정 참여를 촉진시킴. 그 결과 개별 농업경영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도 활성화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음.

- 농가족경영협정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6년도 가족협정 체결 농가는 전국 34,521가구로 2005년도에 비해 2,401가구(7.5%)증가하였음(표 7). 또한 가족경영협정 체결농가 34,521가구 중 73%는 인정농업인이었음(표 8).

표 10. 가족경영협정 체결 농가수 추이

단위: 가구

연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협정 체결 농가	5,335	7,205	9,947	12,030	14,777	17,200	21,575	25,151	28,734	32,120	34,521

자료: 농림수산성 부인·생활과(1999년), 보급과(2000~2003년), 보급·여성과(여성·취농과)(2004~2006년) 조사 「가족경영협정에 관한 실태조사」

표 11. 협정 체결 농가의 구성비율

	협정농가수	비율
전체	34,521	100%
인정농업인	25,117	73%
법인	647	2%
기타	8,757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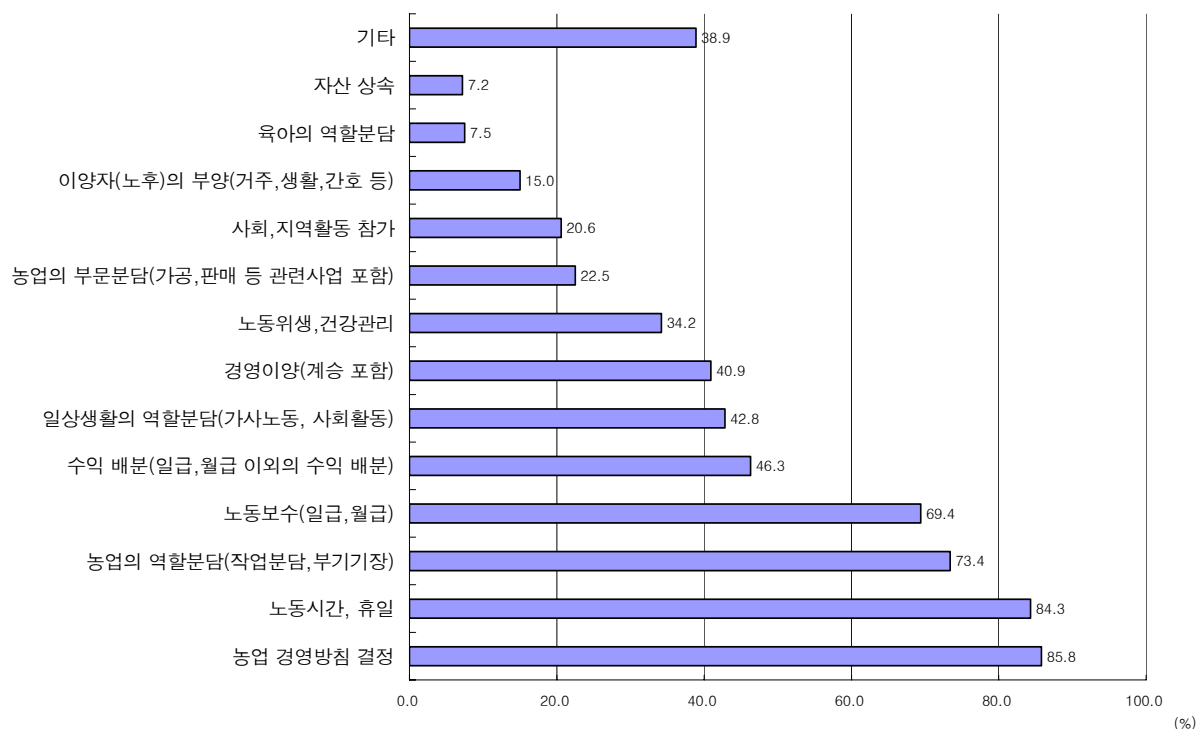
자료: 농림수산성 보급·여성과 조사 「가족경영협정에 관한 실태조사」

- 가족경영협약 내용은 1) 노동보수, 휴일, 역할분담, 작부계획, 소득목표, 경영이양 등 농업경영의 현상과 목표 2)가사, 육아, 노인수발의 역할분담, 공통가계비 지출방법, 주거생활방법, 생활목표 등 일상생활의 현상과 목표 3) 가족

의 생각이나 요구, 과제 등을 포함할 수 있음.

- 가족경영협약은 정해진 양식은 없음. 가족이 의논하여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양식으로 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음.
- 협약 내용은 매년 혹은 수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수정하거나, 혹은 후계자의 취농이나 결혼, 경영주의 경영이영, 가족의 사회참여, 경영내용개선 등이 있다면 가족전원이 의논하고 협약내용을 재검토하고 수정할 수 있음.
- 가족경영협정의 내용은 각 농가 실정에 따라 당사자 간의 대화를 통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획일적인 것은 아님. 2006년도 조사결과(복수 회답)에 의하면 「농업 경영방침 결정」에 관한 결정이 85.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노동시간·휴일」이 84.3%, 「농업에서의 역할분담(작업분담, 부기기장 등)」이 73.4%, 「노동보수(일급·월급)」이 69.4%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그림 4).

그림 6. 가족경영협정 계약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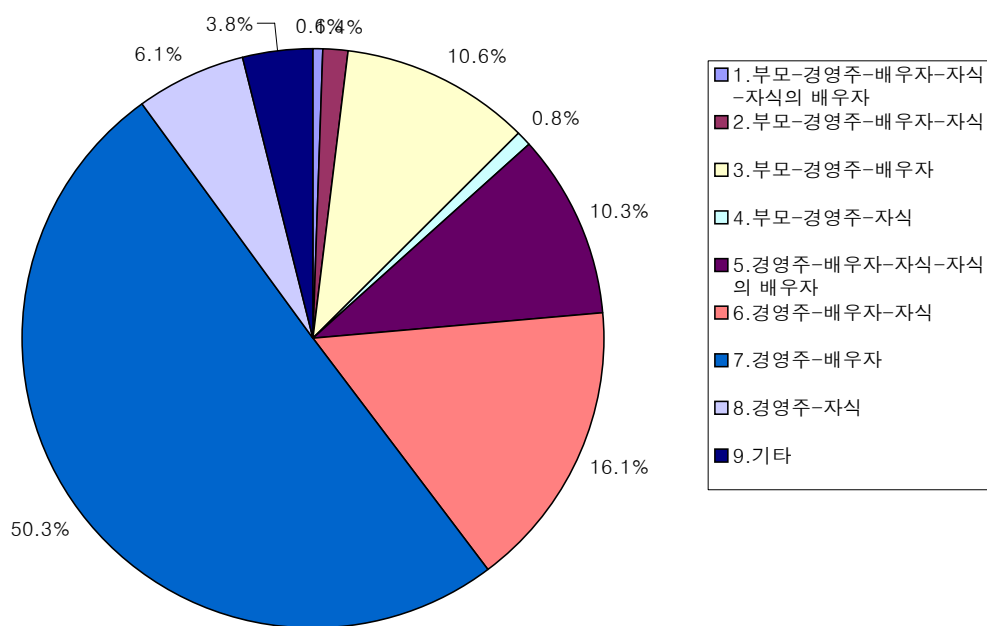
자료: 농림수산성 보급·여성과 조사 「가족경영협정에 관한 실태조사」

○ 협약을 체결한 가족원은 경영주, 경영주의 배우자, 후계자, 후계자의 배우자, 경영주의 부, 모 등임. 다음의 몇가지 유형이 있음.

1) 경영주+경영주의 배우자

- 2) 경영주+경영주의 배우자+후계자
 - 3) 경영주+경영주의 배우자+후계자+후계자의 배우자
 - 4) 경영주+경영주의 배우자+경영자의 부+ 경영자의 모
- 가족경영협정 체결대상을 보면 경영주-배우자 사이에서의 체결이 가장 많고 약 50%를 차지하고 있음(그림 5).

그림 7. 가족경영협정 체결대상 범위



- 가족경영협약 체결 순서는 1) 농업경영 현상이나 과제, 가족의 요망 등을 가족끼리 의논 또는 농업위원회나 농업개량보급센터 등의 담당자가 참여하여 조언, 2) 의논하여 합의된 내용에 실현 가능성이나 필요성에 따라 우선순위 선정하여 실현가능한 협약서를 작성, 3) 문서화된 협약서 조인
- 농업위원회, 농업개량보급센터, 농협 등의 담당자에게 제3자로 입회하도록 부탁하여 조인을 받는 방법, 개개인의 가족단위로 협약 내용을 조인하는 방법,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다른 농가들과 함께 합동으로 조인하는 방법 등이 있음.
- 입회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체결시 농업위원회 등 관계자가 입회인이 되면 사회적 인지를 얻을 수 있고 협약에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음.
- 가족경영협약을 체결하여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에 대해서는 인정

농업인제도, 농업인연금, 농업개량자금 등의 제도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이 있음.

- 인정농업인제도: 실질적으로 공동경영을 하고 있는 경우, 가족경영협약 체결 등을 요건으로 하여 부부가 공동으로 인정농업인의 공동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인정하고 있음. 따라서 공동경영자인 여성농업인, 농업후계자도 공동 명의로 인정농업인이 될 수 있음.
- 농업인연금: 농업인연금의 피보험자이면서 인정농업인, 청색신고자²⁾ 등 의욕 있는 경영주와 가족경영협약을 체결하고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배우자, 후계자가 소정의 요건을 만족시키면 기본 보험료(20,000엔)에 대하여 국고에서 일정비율을 보조
- 농업개량자금: 개별 농업경영에서 가공분야, 신작물분야, 신기술에 도전하려는 배우자가 농업개량자금을 빌리려고 할 때 가족경영협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인정하고 있음.
- 가족경영협약 보급 초기에는 협약 자체에 대해 남편을 비롯한 가족의 반대가 있는 경우가 많았음. 이러한 어려움은 이미 체결하고 있는 농가의 사례 설명, 시정촌 농업위원회, 농업개량보급센터의 담당자의 꾸준한 설득과 교육 등으로 극복할 수 있었음. 부부중심의 영농교육뿐만 아니라 의식교육이 매우 중요함.

5. 한-일 여성농업인 연구협의회 개최 방안

- 협의회 목적: 한-일 양국의 여성농업인 활동 현황 및 지원정책 제도에 대한 정보 교환 및 향후 공동연구 추진 방안 협의
- 개최일시 및 장소: 2007년 10월 12일(금요일) 오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대회의실
- 참석자(잠정):
 - 한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강혜정, 마상진, 농협대 박민선 교수, 여성농업인단체 사무총장(한여농, 전여농, 생활개선회, 농가주부모임), 농림부 여성정책과 과장, 여성정책연구원 김영옥, 김이선 박사, 농업자원개발 연구소 김경미, 최윤지 박사 등
 - 일본: 전국개량지원보급협회 아베스미꼬 박사

2) 신고 납세제도의 하나로써 정부(세무서)가 규정한 장부를 갖추고 청색용지에 개인소득세와 법인세를 신고하는 제도. 경정결정의 제한, 손실 이월 등의 특례가 주어짐.